| 불자 세상보기 |

낙후된 우리의 문화재 인식



강우방
세계조형사상연구원장

만취 여대생 첨성대 올라 셀카
日 도다이지서 한글 낙서 발견
한국 문화재 인식 보여준 사건

특히 불교 문화유산에 관심 無
문화재 훼손돼도 언론 안 다뤄
교육서도 불교문화 우수성 배제

정책과 교육 부재 가져온 결과
인식 변화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최근 일본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다이지(동대사 · 東大寺)' 건물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돼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오밤중에 술에 취한 여대생들이 울타리를 넘어 1천4백 년 된 국보 31호인 첨성대를 기어올라 셀카도 찍었다.

국내외에서 일어난 일은 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국내 사찰이 방화로 하루 밤에 사라진 일이나, 심심산곡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유서 깊은 유적과 작품들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지만, 사건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첨성대와 일본 도다이지는 세계적 유적이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번잡한 곳이니 모두가 볼 수 있으므로 사건화되어 언론 매체가 일제히 떠든다. 그러나 눈에 띠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유적은 훼손이 되어도 아무도 모른다.

필자가 국립박물관에서 미술부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에 중앙청 청사를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불화실(佛畵室)'을 마련하여 불화를 전시했으며, 불화가 워낙 커서 진열장에 넣지 못하고 난간으로 접근을 막았으며 경비를 철저히 부탁했다. 어느 날 전시장을 돌던 필자는 큰 불화가 날카로운 면도칼로 대각선으로 3미터 길게 훼손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필자의 책임을 통감하며, 곧 심혈을 다하여 원상 복원한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찌하여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그리도 관심이 없고 훼손되어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일까. 제보를 해도 언론은 반응이 없다. 그런 사건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 학자들이나 문화재 관련 관청이나 언론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가장 뼈아픈 일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불교미술이다. 박물관에 가거나 산과 바다에 가거나 모두가 불교미술이다. 유교 건축이나 심지어 궁궐 건축이나 모두 스님들이 지은 것이어서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제는 일반 언론에서는 불교를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불교미술이 훼손되어도 기사화를 거부하기 까지 한다. 즉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 등 우리나라 종교들을 평등하게 다루려는 의도가 있으니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는 실로 염려스럽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인 분열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즉 정신적으로조차 양분되어 분열되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비록 조선시대에 불교가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층계급은 모두 불교신자였으며, 몇몇 왕들은 불교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승병(僧兵)들이 나라를 구하였기에 전국의 사찰들의 복구사업이 나라의 지원 아래 활발히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위용을 회복하고 크게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위용마저 사찰과 국가 감독기관에 의해 잘못 보수되어 훼손된 바가 많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점점 강조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 통탄스럽다. 불교의 세(勢)가 상대적으로 점점 약화됨과, 불교계 자체의 무관심이 최근 이러한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글 전용도 문제이다. 세종대왕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썼다. 그 전통은 500년 동안 이어졌는데 한글 전용을 주장하니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멀어져서 젊은 층은 말을 해도 용어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국가 정책의 부재와 올바른 교육의 부재, 그리고 불교계의 무관심 등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로 우리나라 문화의 바탕인 불교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교미술이 점점 훼손되어 갈 것이 분명하여 가슴이 아프다. 불교미술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가치가 있다는 진실도 모르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외국에까지 가서 불교미술을 훼손하고 있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누가 이런 한국문화의 진작이란 국가대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社說

불교인성교육 자생력 키워라

최근 포교원 인성교육 계발 인증위원회에서 제출된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대거 보완 제출을 요구 받았다. '차문화' '중독 예방'의 주제인 만큼 불교 가치 체계화해 담아야 하지만 이론적 근거나 지도자의 실참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정작 이를 진행하는 지도자들에게서 불교가치를 전하는 것을 확대할 시점이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인성교육에서 불교계는 이웃종교계에 한발 앞서 있었다. 명상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배제한 인성교육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지원 사업인 청소년 마음등불에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매년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불교 인성교육을 듣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불교 가치를 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심의에서는 불교용어를 사용하는 것 조차 가렸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오히려 재가 교수를 중심으로 불교가치를 확산시키자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일고 있다. 그렇다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 일반시민, 불자들도 불교 인성교육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 효과성 검증, 언론을 통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현재 인성교육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불교계 단체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이런 시점에서는 종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연구프로젝트를 발족해 불자 교수들을 축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불교 가치가 없는 불교인성교육을 과연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에 부쳐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건립 불사가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오는 8월 24일 위례신도시에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며,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다.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은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성보 문화재의 체계적인 연구 · 보존을 위해서는 불교 자체 문화재 기관이 꼭 필요했고,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존도 시급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완공될 경우 지정뿐만 아니라 비지정 불교 문화재, 일반 성보까지 진단, 보존처리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기대되는 것은 '대형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는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하지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현재 가장 큰 괘불인 보은 법주사 괘불탱을 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존센터 건립으로 얻어질 기대효과로는 문화재 보존 전문 인력 양성도 꼽을 수 있다. 불교계 전문 보존기관이 없어 관련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보존센터로 인해 향후 산학을 연계한 인력 양성 · 수급도 기대된다.

불사가 시작된 보존센터가 불교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처리 시설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

파리와 연기법

파리 한 마리가 방안에 들어왔다. 웬만하면 그놈의 침입을 눈감아 주려했지만 한 순간도 가만있지 못하고 날아다녀 정신을 쏙 빼놓는다. 급기야 녀석이 온몸으로 네 벽을 부딪치며 띵띵 굉음을 지른다. 견딜 수 없어 파리약을 안개비처럼 뿜어댔다. 딱 소리를 내며 녀석이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휴지를 들고 다가가니 무지갯빛 띠를 두른 쉬파리가 누런 알을 쏟아냈다. 아뿔싸! 그만 가슴이 밍밍해졌다.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도 힘든 노릇일까? 암컷의 출산은 더욱 고통스럽다. 금파리의 수컷도 자식이 태어나도록 짝짓기를 하면서 암컷에게 잡아먹힌다. 만물은 단말마의 고통과 목숨까지 바쳐서 종족을 번성시킨다. 탄생은 죽음을 삼키고 일어서는 것일까? 살아가는 과정 또한 양육강식으로 전쟁과 다름없으리라. 삶은 고해(苦海)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내려앉는다.

네모의 방안에서 태어난 누르스름한 파리 알들을 바라본다. 저 알들은 머지않아 파리로 부화하여 날아다닐 것이다. 파리와 나를 견주어 본다. 파리는 외형이 작아서 감히 인간과 겨룬다는 것은 우스운 노릇이다. 그런데도 나는 방금 전에 왜소한 파리 한 마리가 나의 행성에 침입해 설친다고 원폭을 쏟아 붓지 않았던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미물을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듯이.

인간 · 파리란 옷을 각각 입고
지구란 우주서 태어났을 뿐

파리는 둥근 눈으로 덮인 머리를 치켜들고 인간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듯이 앞 다리를 비벼댄다. 우리도 병균을 퍼뜨려서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그리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다. 인간에게는 날개가 없기 망정이지 만약 있었다면 그 자만이 하늘을 찔렀으리라.

우리는 무아연기에 따라 인간과 파리라는 각각의 옷을 입고 지구라는 우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파리와 나의 근원은 하나인 것을. 파리는 곤충으로서의 삶을, 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우주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각각의 우주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동그라미이다. 모든 만물은 저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하물며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가운데 하나인 지구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 인연인가.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파리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할 테다. 초신성처럼 산화했던 엄마 파리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어린 알들에게 갚아주고 싶다. 알들이 성충이 되어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날아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